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싸워나가는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원대한 이상을 안고 개척되고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진로와 명확한 실천방략을 제시하고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향도의 손길에 의하여 그 줄기찬 상승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제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의 사회를 위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조선로동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 전진방향을 확정한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관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최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 조직문제
-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서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되었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 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평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으로 강력히 인도하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 통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로 승화시켰었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었으며 당의 백년,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 리론이 정립되어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었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 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국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

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인민의 크나큰 자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 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대로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었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되었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떴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 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आरो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 결실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장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 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책하시었다.

전원회의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을 흥정하려드는 낡은 사상에 단호하고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객관적환경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

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었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리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였었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어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였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를사, 수산,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체제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면에서 계속)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 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릴새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었다.

보고는 2022년의 투쟁과정에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취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옮겨 이끌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활발히 조직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었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병량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진공공하면서도 그 악착성과 발악성에 있어서 인류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러서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고는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쫓는 남조선피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들에서 천명된 군건설방향에 립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일당백》구호제시 60돐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는 온 한해 초긴장의 생산돌격투쟁, 과학연구투쟁으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주요국방정책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일군들의 헌신과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새 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 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였다.

국제관계구도가 《신평전》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국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었다.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었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잡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

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래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옹호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변화발전하는 환경과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맞게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실리적으로 정비하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조선로동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해당지역의 정치적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 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부름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였다.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2022년의 전인민적인 투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전진방향과 비약의 해법을 명확히 밝힌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에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으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미래를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개척해나갈 필승의 자신심으로 총만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정적인 보고는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된 위대하고 무진한 힘을 적극 승화시켜 그 절대의 위력과 과감하고 용의주도한 투쟁으로 국가부흥의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줄기차게 달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회의에서는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전반적국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에 대한 김덕훈 내각총리의 제의를 청취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방대한 2023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결정서초안에 대한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 의하고 새해 국가예산안심의정형을 검토하였으며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도에서 국가예산심의회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 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지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섯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 80성상을 가까이하는 장구한 집권행로를 아로새겨온 우리 당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을 직시하고 당의 실태를 투시한데 기초하여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본래를 굳건히 고수하며 령도적, 전위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는것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새시대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조직, 사상, 령도에출건설의 혁명적진수와 내용, 고귀한 경험을 다 포함하면서도 당사업실천에서 철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하여 제시된지 몇 달 안되는 기간에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전적인 지지찬동을 획득하였다.

당건설에 관한 리론체계를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로 새롭게 구성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고 정연하게 하는 사업이 실행되었다.

특히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고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적각성과 역할이 양강강화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당건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당중앙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 건전하고 결백한 정치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당조직들과 수백만 당원들을 가지고있으며 수천만의 인민들이 당을 백승의 향도자로, 위대한 어머니로 절대신뢰하고 일원단심 따르는것은 당강화의 믿음직한 힘으로, 역척의 지반으로 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력사적행정에서 그 계승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현가능성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증한데 따라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을 당의 로선으로 책정하는것은 조건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실하면서도 성숙된 문제로 부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이 우리 당의 당건설로선으로 확정되면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성격과 본래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강화하면서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백년, 천년 다해나갈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전당의 의사가 집대성된 새시대 당건설방향을 정식 당의 로선으로 책정할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을 우리 당의 새시대 당건설로선으로 책정함에 관한 결정서가 장내를 진감하는 우렁찬 박수속에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직면한 난국을 건디여내고 자체를 유지보존하는데만 머무르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발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 나아가는 미증유의 거창한 위업이다.

새해에도 우리의 투쟁은 결코 쉽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게 될것이지만 자기 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딪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성과 혁명성, 헌신성에 의하여 전원회의결정들이 착실한 집행과 실제적인 변혁으로 이어지고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는 끝없이 펼쳐질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며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세련된 령도에술,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전당강화와 국가부흥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줄기차게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제 또다시 강용히 넘고 헤쳐야 할 시련의 준령들앞에 새로운 신심과 의지로 총만된 마음들을 엄숙히 세워보며 당중앙을 따르는 혁명의 한길에 일원단심 변함없을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원숙한 령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굴함없이, 멈춤없이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기세에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더해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는 조선혁명의 승리적행로에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

600mm 초대형방사포증정식 성대히 진행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위대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실현을 무조건적으로 절대 지지하고 결사의 실천으로 받아들여가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열렬한 충성과 애국의 마음이 응축된 첨단무장장비인 초대형방사포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증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초대형방사포를 개발완성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여러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신뢰성,

운용민음성을 뚜렷이 확증하고 계열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공화국무력의 군사적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절대충실하고 조국과 혁명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하여 역사에 없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군수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건인불발의 승산투쟁을 전개하여 30분의 초강력주체병기들을 당중앙전원회의에 드리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600mm 초대형방사포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제일 큰 자랑중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의 전체 혁명전사들이 당중앙이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 전략의 성과적실현에 총결기해 분투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담례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증정식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참가자들과 함께 초대형방사포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을 량심과 의리로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증정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증정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 불면불휴의 화성령도로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억만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갈 세계 최강의 전략적힘, 절대의 위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고 강군건설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의 참가자들이

증정식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군수로동계급대표가 증정보고를 하였다.

그는 꿈결에도 그리며 우리르던 당중앙트락에서 군수공업역사에 있어본적 없고 세상이 처음 보는 성대한 무기증정식에 참가한 커다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군수로동계급이 당의 강군건설위업을 피와 땀으로 받아들여갈 애국의 일념안고 분기하여 증산한 초대형방사포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정중히 증정함을 삼가 보고드리였다.

그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받아들여나갈 전체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드림없는 신념과 충성의 결의가 담긴 증정서를 김정은원수님께 정중히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강력한 국방건설구상을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떠받들 불굴의 기개를 안고 분투하며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비들의 증정으로 전원회의의사업성과를 절대지지해주고 불굴의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준 군수로동계급의 진정에 감사를 표하시고 열정넘친 담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군수로동계급과 절대의 힘을 지닌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있

반드는 군수로동계급의 투철한 사상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다시금 평가하시고 충성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 혁명을 위해 계속 헌신해나가기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초대형방사포증정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하고 조선로동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과 로선을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아들여나갈 영웅적 조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맹세와 억척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신년경축대공연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새해를 경축하는 뜻깊은 대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5월1일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 어린이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 지휘관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 수도시민들이 대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을 찬탄한 받들어갈

인민의 애국열의가 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계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상,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비껴안고 펄펄 날리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공연에는 어머니당을 열렬히 칭송한 찬가들과 로동당시대의 명곡들, 무용

종목이 올랐다. 대공연에 출연한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만수대에술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은 참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으로 송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신년경축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초대형방사포 검수사격 진행



제2경제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오전 당중앙에 증명하는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을 진행하였다. 3발의 방사포탄은 조선 동해의 섬목표를 정확히 명중 하였으며 무장장비의 전투적 성능이 과시되었다. 2023년 1월 1일 새벽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어느 한 장거리포병구분대에서는 인도된 초대형방사포로 1발의 방사포탄을 조선동해를 향해 사격하였다.

본사기자

2023년 신년경축연회 진행

2023년 신년경축연회가 12월 31일 목란관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군사기술적강세로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는데 공헌한 군수부문 일군, 공로자들을 신년경축연회의 주빈으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연회장들은 투철한 자주적 신념과 강철의 담력으로 국가방위력의 변혁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특대사변을 련이어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전사들에게 안겨주시며 뜻깊은 연회에 불러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준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연회들에 참가하였다. 연회들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한결음한결음의 전진이 그토록 어려웠던

2022년의 국난은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류레없는 간고분투를 요구하였 으며 우리 혁명공업전사들은 그것을 송고한 의무로 기꺼이 받아안고 부국강병사에 일찌기 없었던 기적의 열두달을 아로새기었다고 말하였다. 당과 인민은 공화국의 국위와 국력을 절대지위에 떠 올리는데 바쳐진 군수부문 일군, 공로자들의 고결한 애국적헌신성과 송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우리 국가의 절대적인 안전담보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의 붉은 전사로서의 명예와 무훈을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과 용대한 결심을 받들어 국방력강화의 첨단목표들을 계속 줄기차게 점령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주체조선의 더 큰 승리를 기약해주는 2023년의 황홀한 해돋이

새해가 밝았다. 아침의 햇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그 이름도 《조선》이라 불러온 이 나라 강산에 희망찬 새해인 주제112(2023)년의 아침햇살이 솟아올라 누리를 밝게 비추고있다.

장쾌하게 떠오르는 해돋이는 사람들에게 삶의 량만과 희열을 안겨준다. 태양이 없는 만물, 인간의 생존과 활동도 있을수 없기에 사람들은 광명을 안아오는 해돋이와 같이 행복이 오기를 바라며 햇맞이를 한다. 고대그리스인들이 《세계7대기적》의 하나인 태양신 헬리오스의 청동거상을 해돋이를 제일먼저 볼수 있는 자기 나라의 동쪽 끝 로도스섬에 세운것으로 그런 소망에서였으리라.

연제인가는 해가 제일먼저 떠오르는 광경을 보겠다고 태평양의 엔드포드섬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사진가자들이 밀려들어 세인의 이목을 끈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밝아오는 새해의 해돋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한결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각도 행성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쳐들 재난과 생활난을 걱정하며 불안과 위구속에 밝아온 새해를 맞이하고있다.

몇해째 지속되고있는 악성 전염병의 끊임없는 전파로 전 세계가 아직도 비애와 절망,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나라와 민족들, 종족들사이의 류혈적인 충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으며 피난민들이 부평 초처럼 행성을 떠돌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새해는 《2022년이 역대 최악의 해》였다는 비난과 레일에 대한 국도의 불안, 절망속에 밝아왔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 각계층은 지난해가 정치적대립

과 사회적분열이 극도에 이른 《정치실종의 한해》, 사면초가의 외교안보위기에 빠져든 《공포의 한해》였으며 대형사고와 재해들이 연이어 발생한 《악몽의 한해》였으며 저주하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년초부터 연말까지 대형사고와 재해들이 줄지어 이어져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잠기게 하였다.

지난해 1월 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내부구조물과 외벽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술한 로동자들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리제 8월에는 80년만에 들어닥친 최대규모의 폭우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2 200여명의 리제 1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앙에 주되는 책임이 있는 당국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고 전 《정부》와 아랫것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일관한데로부터 남조선에서는 지난해가 저물어가는 속에 2022년을 특징짓는 4자성이 1위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미를 나타내는 《파이불개》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얼마나 정치가 개판이고 현실과 미래가 암담하면 이런 성구가 한해를 특징짓는 4자성으로 선정되었는가.

이처럼 불안과 고통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고 하여 마음이 밝아질수 없는것이다. 새해의 장쾌한 해돋이를 느끼지도 없다.

하나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른 이 땅의 해돋이는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으로 이 나라 인민의 가슴을 스며들듯 부풀어오르게 한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른 눈부신 태양의 빛깔은 사람들을 미래에 대한 낙관, 맞이할 더 큰 승리와 영광으로 심장을 높뛰게 한다.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 희열을 안고 공화국인민들은 희망찬 새해의 해돋이를 바라보며 위대한 기적과 변혁, 책과 학용품이 일식으로 공급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천하제일의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실천형의 강군으로서의 공화국주력의 강대성을 만천하에 시위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공화국평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엄혹한 전염병위기를 타개하고 이룩한 방역대승,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인 초대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비롯한 주체병기들이 행성을 뒤흔든 거대한 폭음.

정년 반만년민족사와 70여년에 이르는 공화국의 역사를 극적으로 변천시킨 2022년이다. 이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결어은 길, 이룩한 사변과 승리들을 되새겨볼수록 온한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임없는 헌신의 길을 걷고 걸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영상이 승엄히 어려와 인민은 눈시를 뜨겁게 적시고 적신다.

중환 송화거리 준공식과 수도중심부의 유서깊은 명당자리에 행복의 별천지로 솟아오른 보통강강안다락식주력구 준공식, 경사로온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련포온 실농장 준공식과 금성드락도르공장의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들의 준공, 황남땅에 펼쳐진 농기계바다, 농촌진흥과 지방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

새로운 육아법의 채택으로 온 나라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젖채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되고 보다 훌륭한 양육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새 학년도를 맞이한 전국의 모든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신발, 책과 방과 학용품이 일식으로 공급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천하제일의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실천형의 강군으로서의 공화국주력의 강대성을 만천하에 시위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공화국평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엄혹한 전염병위기를 타개하고 이룩한 방역대승,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인 초대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비롯한 주체병기들이 행성을 뒤흔든 거대한 폭음.

정년 반만년민족사와 70여년에 이르는 공화국의 역사를 극적으로 변천시킨 2022년이다. 이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결어은 길, 이룩한 사변과 승리들을 되새겨볼수록 온한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임없는 헌신의 길을 걷고 걸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영상이 승엄히 어려와 인민은 눈시를 뜨겁게 적시고 적신다.

2022년을 맞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기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신데 이어 수많은 중요 및 국가회의들을 지도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흥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부위원회 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어 현시대 가장 정확한 당건설방향을 밝혀 주시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변석혁명학원 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변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억년 정정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종장이 되리》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어 주체위업의 억년 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들을 든든히 키워내기 위한 독창적인 혁명가후비육성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백승의 진리, 그 어떤 국난속에서도 반드시 위대한 새 승리를 안아오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

의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 력사의 순간들이였다.

온 나라 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 사회주의변화가 송화거리 준공식과 수도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특색있게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력구 준공식, 동해지구에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진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장에 나오시어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행복을 마련해주신것이 그리도 기쁘신듯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그 존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밖에 도래한 건국 이래 대통령직의 준엄한 그 시기에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줘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시였다.

깊은 밤 악성비루스가 떠도는 수도의 악곡들을 찾고 찾으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장에 몸소 나오시어 위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전략적합, 절대적합을 만방에 펼쳐주시던 근엄하신 그이의 영상도 인민의 가슴속에 소

중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시련이 겹쌓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더욱 높이 모시고 따르며 자기난속에서 모든것을 인내하며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리라는것이 2022년의 시련의 언덕을 넘고헤쳐며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 억척의 신념이다.

참으로 2022년은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뜻으로 굳게 뭉친 공화국인민들이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광을 세계만방에 더 높이 떠 올린 위대한 승리의 해, 력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진 잊을수 없는 해였다.

걸어온 한해의 발걸음이 그처럼 값있고 이룩한 성과와 승리가 너무도 커서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을 크나큰 감격과 환희, 희망과 락복속에 맞이하는 공화국인민들이다.

밝아온 2023년은 지난 2022년보다 더 큰 승리와 변혁이 기억되어있는 희망찬 새해이다.

새해를 맞은 공화국인민들의 앞길에는 이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승리의 리정표가 세워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말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대회이후 지난 2년간 조선로동당이 혁명의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도전에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 발전행로를 개괄하시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진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간고한 행정에서 쟁취한 성과와 함께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

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발 전방향을 명확히 한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곧 난속에서 모든것을 인내하며 실제적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양되고 확실성있는 투쟁방략을 세출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전략전술적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을 명시하시였다.

뜻깊은 당전원회의에서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대처한 공화국의 전진방향과 비약의 해법을 명확히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는 나라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원대한 리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대담하고 적극적인 실천행동지침들이 반영된 것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각지 인민들은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2023년의 해돋이를 한없는 긍지속에 바라보며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가슴이 벅차도록 새겨보고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도 가슴 벅차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맞이할 새해의 더 큰 승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격정으로 끓어오릅니다. 정말 신심이 넘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그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승리의 력사만을 펼쳐갈것입니다.》...

밝아온 2023년의 찬란한 해돋이와 함께 공화국인민들은 보다 큰 승리를 마중가는 력사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첫 자욱을 힘있게 내걸었다. 조선에서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2023년은 시작되였다.

본시기자 유금주

새해에 부리는 모두의 소망

누구에게나 새해의 첫아침은 참으로 의미깊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며 더 좋은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게 되는 새해의 첫아침! 하다면 승리의 커다란 공지와 기쁨, 랑만속에 밝아온 새해 2023년의 첫아침이 나라 천만민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어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남녀로소 그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적인 그 소망.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이다.

공화국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하나의 노래가 있다.

이 한반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다니다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다니다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정성담아 피운 아름다운 꽃으로 송이송이 다발을 엮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가는 군중의 행렬이 새해의 이 아침 온 나라 방방곡곡, 거리거리에서 끊없이 물결쳐 흐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넋넉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를 충심으로 받들 때 더 좋은 앞날과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2022년의 투쟁을 통해 다시금 체험한 천만민민의 불같은 충심의 막을 수 없는 분출입니다.

경애하는 그이따라 걸어온 자욱자욱을 되새기며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을 들먹이는 온 나라 인민들이다. 더우기 최대국난의 해였던 2022년의 언덕을 넘으며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이 세상 무서울것이 없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불변의 신념으로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구경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총비서동지만 따르겠습니다.》, 《정녕 이번 4월의 심야야병식은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강성변영한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름없는 농장원인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 주신 삼미약품을 받아안았을 때 정말이지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습니다.》, 《우리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해주시려 나라의 중요군사기지가 지 통채로 내어주시고 조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도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았습니다.》, 《9월의 밤하늘을 가를 아름답게 물들여던 랑홍색국기를 평생 잊을것같지 못합니다.》, 《만리창공을 헤가르며 솟구쳐오르는 신행대륙강란도미씨일 (화성포-17) 형의 불줄기를 보며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구쳐오른 우리 국가의 국위와 국망을 이 가슴이 터지도록 절감하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이 나라 인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이 강토가 더욱 강대해지는 길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드는 길이기애 이 아침 거리마

다, 일터마다, 집집마다 차 넘치는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을 바라고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이런 뜨거운 넋원이 고개칠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자리 잡고있는것은 인민의 건강과 안녕이고 끝없는 행복뿐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 편의를 최우선, 절대하시다.

지금도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은 지난해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다고, 기쁨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고 힘을 때조차 나를 다잡아 주고 항상 떠밀어 일시켜 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다고 절절히 말씀하

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시기에 희생적인 헌신과 령도로 인민을 약성정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위대한 방역대승을 안아 오시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2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해 초인간적인 정력과 무한한 헌신으로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들을 적파하시며 공화국의 국위와 존엄을 세계만방에 더 높이 떨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법적 성과들을 안아오신 령사적인 해, 위대한 승리의 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2022년의 나날들을 고뇌와 실험, 로고와 헌신의 분분초초로 이어오시고 인민들에게 못다 주신 사랑이 있었듯이 한해가 저우는 날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전면적부흥과 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방략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정력적으로 사임하시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로 여가며 위인헌신의 길을 걸고 걸으시고 인민은 령도자를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충성다하는 이 감동적인 화폭,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이 불가항력이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은 밝아온 새해 2023년에 더 강해지고 더 큰 승리, 더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리운경



방문기

송년의 밤, 잊지 못할 추억

송년의 밤은 잠들지 못할 밤이다. 최후의 국난속에서도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기적적인 사변과 눈부신 성과들로 한 해를 빛나게 장식한 긍지를 안고 밤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 그 어디에서나 더 좋아질 레일을 더한 부푸는 꿈과 희망으로 기쁨과 희열에 넘쳐있었다.

그 모든것에 눈길을 떼지 못하며 명거리를 이룬 령사적 성과를 지나난 우리는 어느한집에서 들려오는 청높은 웃음소리에 이 끌려 발걸음을 돌리었다. 초인종을 누르니 세대주 광속과 그 안의 고원성녀성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늦은 밤에 미안하다는 우리에게 광속을 새해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새월은 가고 추억은 온다는 말이 있듯이 해마다 12월 31일을 맞을 때마다 감회가 깊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버지(광철성)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광속이는 벽면에 모셔져있는 한쌍의 사진을 가리켜보였다.

《사진의 뒤면에 활달하신 필체로 《김일성》이라고 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친필이 새겨져 있는 이 사진은 주체37(1948)년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기념으로 주

신 뜻깊은 사진입니다.》 사진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를 때마다 절세위인들께서 평범한 한 전사에게 베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어려오곤 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못말려 그날에 추억의 노를 짓게 했다.

1948년, 그해는 자주독립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린 의의깊은 해였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와 더불어 건국의 해가 바야흐로 저물어가던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적에게 사선을 넘어온 한 전사를 만나주시었다. 후려후려한 키에 든듯한 채, 굳게 다물린 입과 사색어린 눈빛... 첫눈에 대담 말수가 적고 의지가 굳세다는 느낌을 주는 30대의 그가 바로 광철성이었다.

그를 만나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지금 북반부 사업은 잘 안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반미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특별조직을 내오실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특별조직책임자로 광철성을 임명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광동무에게 영원한 혁명동지가 되자는 의미에서 자신의 사진 한장을 기념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뒤면에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이라고 쓰시어 광철성에게 주시었다.

한번 뜻을 나는 동지라면 이 세상 우주라도 통채로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넘쳐나 그의 영상이 사진을 받아안은 광철성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렘었다.

수령의 믿음, 그것은 신념의 인간, 열정의 투사를 키우는 자양분이다. 그후 민족의 분열을 하루

빨리 가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서울, 김포를 비롯한 남조선의 산야를 총횡무진하며 맹렬한 활동을 벌리던 광철성은 준엄한 전하의 나날적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전사하였다.

《저의 아버지의 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못해 비통해하시며 조국은 광철성과 같은 유망무명의 애국렬사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수령의 믿음에 끝까지 충실한 한 전사를 잊지 않았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그후 아버지는 반일애국렬사, 조국통일상수상장, 공화국영웅의 모습으로 영생하는 삶의 결정에 올랐다고, 아버지의 얼골조차 모르는 자식들이 외로워할때 사랑의 한줄기 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덕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살고있다고, 몇해전에는 령명기에서 제정된 바야흐로 이 이야기하는 광속이의 두눈에는 뜨거웠던 것이 고여있었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지만 마련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신 구상을 받들고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을 다 바쳐온 아버지처럼 조국의 부흥변영을 위한 투쟁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햇빛이 비치는 강산에서 값높은 삶을 누리는 세상에 없는 긍지와 창창한 미래를 마중해가는 환희에 넘쳐있는 이들과 함께 보내고 밖으로 나서서 새해가 가까와오고있었다. 밝아온 새해를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더 넓은 레일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열의속에 깊어가는 송년의 밤이었다.

본사기자 홍흥식

설맞이공연과 조국의 따스한 사랑



뽕뽕 웃어라, 활짝 피어라

새해를 맞이한 대동강반에 아이들의 웃음칩니다. 기쁨에 겨워 춤을 추듯 장충장충 뛰노는 소녀며 손에 든 공화국기를 앞에서 휘날리며 으시대는 장난꾸러기 아이의 모습. 부풀어오르는 꿈을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얼굴마다에 피어있는 밝은 웃음. 어찌 천진관만한 아이들의 동심에서 나

오는 웃음이라고만 하라. 공화국의 밝은 모습, 휘황찬란한 미래가 비껴 더욱 환한 아이들의 웃음이다. 눈부실 비약과 번영의 해. 보다 큰 승리가 기억되어있는 2023년의 새해에 산산도. 사랑도 더더욱 아름답게 안겨어 온다.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어라. 복받은 아이들아!

본사기자

새해를 맞으며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설맞이 공연무대가 펼쳐지곤 한다.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부림없이 자라는 자그마들의 행복을 노래와 춤에 담아 펼쳐보이는 그들속에는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의 모습도 있다. 꿈결에도 그리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무한한 행복감을 기쁨과 눈물속에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대를 두고 이어지는 제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어 온다.

설눈아 설눈아 포근한 설눈아 이역방에 내릴 땀 차고차머니 조국에서 맞으니 따스하구나 아 따스하구나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진행되는 설맞이 공연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던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이 부른 노래의 한구절이다.

조국의 학생들이 해마다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설맞이 공연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부러움을 감잡지 못하며 자라나 조국의 품에 안길 그날을 그리던 제일동포학생소년들.

이들의 간절한 마음속을 원을 헤아려 조국으로 불러 주신분은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당시 총련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맞이하는 1987년의 설맞이공연에 꼭 제일조선학생들을 보내고싶어 예술소조경연을 조직하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께서는 그들이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게 하라고 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따사로운 그 사랑에 의해 예술소조경연에서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인 가무이야기 《원수님 뵈고싶어 왔습니다》를 가지고 지역의 꽃봉우리들이 조국으로 오게 되었고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설맞이공연에 참가하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몸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할가, 흑시 노래를 부르다가 실수라도 하지 않음과 걱정을 앞세우며 울렁이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하는 동포학생들을 알아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만민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축하를 받게 된 동포학생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차올랐고 그 눈물은 출연 전 기간 두말을 적지않다.

드넓은 무대우를 꽃나비처럼 활활 날으는 동포학생소년들의 춤과 노래는 그대로 감격과 기쁨의 분출이었고 조국, 총련학생들도 꼭 참가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마련된 1995년 새해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제일조선학생소년에출단 성원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설날을 맞는 서러움과 부받지는 그리움을 못이겨 오열을 터뜨렸다.

제일조선학생소년에출단 성원들이 조국의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설맞이공연으로 조국에 온 총련학생들이 다 잘 있는가고 따듯이 물어주시고 자신께서도 설맞이공연을 TV화면으로 보았다고, 이번엔 조국에 온 총련학생들이 조국학생들과 같이 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총련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을 더더욱 그리워하면서 모두 울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목관관에서 연회를 잘 차려주며 돌아가서 총련의 조직강화와 애국사업에 일생을 바쳐 일해나가도록 고무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진정 그 은정은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하시고 열을 주면 백을 더 주고싶어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베풀실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고 자애깊은 사랑이었다.

본사기자 정영민

주체 112(2023)년 새해의 우표와 엽서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 해 주체 112 (2023) 년을 맞으며



국기계양식 진행

주체112(2023)년 1월 1일 국기계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은 사회주의조선의 국기가 창공에 나뭇길력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온 수도시민들의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정각 0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에 이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율이 수도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소년이 국기를 정중히 게양하였다.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 떨치는 주체조선의 영웅적인 투쟁행로가 력력히 비껴있는 우리의 국기, 전체 조선인민의 존엄과 생명, 찬란한 미

래를 소중히 새겨안은 람홍색기폭을 우리러 군중들은 일제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무궁한 공화국의 영광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상징하며 수도의 밤하늘에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는 속에 새해를 경축하는 황홀한 축포의 불줄기들이 연이어 솟구쳐올랐다.

본사기자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신년경축야회 진행

주체111(2022)년 12월 31일 밤 수도의 김일성광장에서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신년경축야회가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야회가 시작되었다. 야회참가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광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최대

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환희로운 축하마당을 펼치었다.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누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는 선물들에 맞추어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강국의 시대와 더불어 값높은 청춘시절을 빛내여가는 자부심에 넘쳐 경축의 원무를 이어갔다. 조선로동당의 위민헌신의 려정우에 펼쳐진 거창한 변혁

과 눈부신 실체들,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온 한해 피여난 인민의 밝은 웃음을 되새겨 주며 연이어 울려 퍼진 《웃음꽃이 만발했네》, 《홀라리》 등의 노래들은 야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외교단 성원들과 체류중의 국순님들도 회열과 람만으로 충만된 청년학생들의 흥겨운 원무를 감탄속에 바라보았다.

본사기자



새해를 축하합니다

희망찬 새해 2023년을 맞으며
해외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애국애족운동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체 112(2023)년 1월 1일